

# 3년간 3000억... 현대중 이상균 '안전 혁신' 드라이브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대표 사장)

고강도 안전종합대책 마련  
자문위원단 확대 운영하고  
작업자에 '안전개선요구권'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지원

“(현대삼호중공업은) 이상균 사장 취임 이후 현장 사고 크게 줄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최근 잇따라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조선사업대표로 선임된 이상균 사장에 대한 현장 직원들의 반응이다. 이상균 사장은 지난 2018년 11월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 현대삼호중공업의 현장 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3년여 동안 영암 조선소의 현장 사고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며 “현대중공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



(작은 사진)현대중공업 조선사업 대표 이상균 사장.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경.

장으로 선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그룹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실천하기 위해 고강도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각 사업장의 안전 시설 개선과 교육 관련 투자를 확대해

향후 3년간 총 3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안전 혁신 자문위원단 확대 운영 ▲전 작업자에게 '안전개선요구권' 부여 ▲안전 조직 개편 ▲안전시설 투자 확대 등 3년

간 총 1600억원을 안전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5일 조선사업 대표에 이상균 사장을 선임한데 이어, 안전시설에서부터 작업 절차, 조직,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안전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내 최고 수준의 외부 안전전문가를 영입하고, 안전인증기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혁신 자문위원단'을 확대, 개편해 안전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전 작업자에게 '안전개선 요구권'을 부여하고, 작업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협력사를 포함한 약 2만2000명의 전 근

로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프로그램도 연내에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안전위기관리팀을 신설, 전 작업장에서 상시점검 및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문제점을 조기 발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며, 협력사들이 자체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협력사 대표 안전마인드 향상, 안전 인증 의무화 및 지원,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은 “이번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룹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안전에 있어서는 회사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모든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한 만큼 모두가 한마음이 돼 안전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쌍용차, 서울서비스센터 1800억에 매각... '유동성 숨통'

구로동 위치 5471평 부지 매각  
“재무구조 개선... 정상화 총력”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유동성 악화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비 핵심자산 등 자산 구조 조정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및 투자재원 확보에 속도를 높인다.

쌍용차는 비 핵심자산 매각 등 자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투자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서울서비스센터에 대한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매각대상은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서울서비스센터로 토지면적 1만8089㎡(5471평), 건평 1만6355㎡(4947평) 규모이다.

매각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



쌍용차 서울서비스센터.

며, 매각 후 임대 조건으로 매각금액 규모는 1800억 원이며 6월까지 입금 완료 예정이다.

지난 5월 15일 국내·외 자산운용사,

증권사, 부동산개발사, 시공사 등 20여 개사를 대상으로 입찰안내서를 발송해 8개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등 치열한 경쟁 속에 25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주)피

아이에이(PIA)가 최종 선정됐으며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계약이 이뤄졌다.

쌍용차 관계자는 “서울서비스센터를 임대 조건으로 매각을 진행한 만큼, A/S 등 고객 서비스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 보다 나은 고객 만족과 서비스 품질 제공을 위한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산물류센터에 이어 신규 자금조달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비 핵심자산 매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장상황 호전에 대비한 신차개발은 물론 상품성 모델 출시를 통해 연내 제품군 재편작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쌍용차는 올해 하반기 G4 렉스

터 부분변경 모델과 함께 티볼리 롱바디 버전인 티볼리 에어 재 출시뿐만 아니라 내년 초 국내 첫 준중형 SUV 전기차 출시를 위한 막바지 개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향후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한 유동성 확보는 물론 재무구조조정의 차질 없는 진행을 통해 쌍용차의 지속경영 가능성 등 회사의 실현 가능한 경영계획을 조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경영쇄신 방안과 비 핵심자산 매각을 통한 단기 유동성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방안 모색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쌍용차가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쉐보레

‘히어로 응원’ 캠페인 연장  
말리부 등 취득세 7% 지원

쉐보레는 5월에 이어 6월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우리들의 히어로 여러분을 쉐보레가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연장 시행한다.

1일 쉐보레에 따르면 의료 및 택배업계 종사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종별로 20만~30만원을 특별 지원하며, 다자녀·다문화 가정, 신혼 부부, 교사, 교직원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개별소비세 외 추가 세금 부담을 지원하는 ‘Tax free event’를 6월까지 연장 시행한다. 이를 통해 콤포 할부 프로그램 적용 시 스파크(LS, Van 트립 제외) 구매 고객에게 12년차 자동차세에 상응하는 120만원을 지원하며 말리부, 트랙스, 이쿼녹스 구매 고객에게 차량가의 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지원한다.

/양성운 기자

## LG, 獨 밀레에 로봇청소기 특허료 받는다

관련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LG전자가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생활가전의 앞선 특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최근 유럽의 대표적인 가전업체인 독일 밀레와 로봇청소기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밀레는 LG전자의 로봇청소기 특허 기술을 사용해 로봇청소기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계약은 LG전자가 로봇청소기에 채택한 ‘충전 유도 가이드’ 등 3가지 독자 기술에 관한 것이다.

충전 유도 가이드는 청소를 마친 로봇청소기가 다음 청소까지 대기하기 위해 충전도크(Dock)까지 정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대부분의 로봇청소기는 적외선 유도 신호를 따라 충전도크로 돌아오게 된다.

LG전자 특허는 적외선이 일직선으

로 곧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격벽 구조를 이용해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적외선을 차단시킨다. 이 기술이 적용된 로봇청소기는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나간 적외선 신호를 감지하며 정확하게 충전도크까지 도착할 수 있다.

LG전자는 충전 유도 가이드 외에도 먼지통에 결합되는 필터의 장착여부 감지구조, 하부 브러시의 결합구조 등의 특허도 밀레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로봇청소기와 관련해 글로벌 기준 700건이 넘는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6월 GE어플라이언스와 프리미엄 냉장고인 얼음정수기냉장고의 핵심 특허인 도어 제빙과 관련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밀레와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LG전자는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생활가전 분야의 앞선 특허 경쟁력을 인정받게 됐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LS전선 “케이블 선택 앱으로 똑딱”

케이블 추천 앱 ‘커넥트LS’ 개발  
조건 입력하면 적합한 제품 추천

LS전선이 복잡한 케이블 선택 과정을 디지털로 간편화했다.

LS전선은 1일 국내 최초로 케이블 추천 앱인 ‘커넥트L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환경에 따라 가장 적합한 케이블을 간편하게 찾을 수 있는 앱이다. 케이블 사양서를 보면서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 허용전류를 계산하는 복잡한 과정이 몇 번의 터치만으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다.

송전망을 비롯해 각종 건설, 산업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케이블의 종류는 수백 종에 이른다. 커넥트LS는 케이블의 수와 길이, 전압, 배열 방식, 매설 깊이, 주위 온도 등 각종 조건들을 선택하면 가장 적합한 케이블을 추천해 준다.

아울러 LS전선은 향후 커넥트LS를



LS전선 케이블 추천 앱.

/LS전선

통해 모아진 고객 정보들을 빅데이터로 활용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이다. 온라인으로 케이블의 구매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명노현 LS전선 대표는 “LS그룹의 미래 준비 전략인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케이블 사업에 빅데이터와 IoT, AI 등을 접목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